

보성여자중, 학생회 주관 화합의 '여·보·새·요' 캠프 실시

여·보·새·요, '여러분의 보람찬 새 출발을 도와줄 화합의 요정'이라는 뜻 청소년 시기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보성여자중학교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학생자치회(행사활동지원부)가 주관하는 '여보새요 캠프'가 열렸다.

'여보새요'는 '여러분의 보람찬 새 출발을 도와줄 화합의 요정'이라는 뜻으로 학생자치회가 화합의 요정이 되어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두를 화합의 요정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만들었다.

이 캠프는 선후배간 또는 동학년간 유대감, 협동심, 친밀도를 높여 청소년기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희망자를 신청 받아 실시했다.

방과후인 오후 6시 30분에 참가 학생들이 학교 체육관 강당에 모여 조를 짜고, 진행을 맡은 학생자치회의 안전 브리핑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1·2·3학년 학생들이

루 섞인 6개의 모둠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어려움을 배워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레크리에이션(몸으로 말해요, 고갈 쓰고 인형 찾기, 만장일치 게임, 노래 전주 듣고 맞추기 등), 이튿표 만들기, 보물찾기, 물렛 등이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구성하여 재밌고 참신하게 진행되었다.

캠프가 진행되는 내내 참가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강당에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교장 선생님과 함께 참여한 '몸으로 말해요' 시간에는 즐겁고 큰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노래 전주 맞추기 게임 시간에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맞힌 팀에서 서로 나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보물찾기는 학교에 고르게 퍼지게 한 후

알람이 울리면 시작하는데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2학년 정○○학생은 "작년에도 여보새요 캠프에 참여해서 두명의 선배들과 친해졌습니다. 올해도 캠프에서 다양한 선배와 친해져서 대인관계가 넓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보새요 캠프를 주최한 행사활동지원부의 임원이자 캠프의 진행자인 3학년 이○○학생은 "우리 학교의 전통인 여보새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뿌듯하고 만족스러워요"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이 행사가 유지되어 보성여중 학생들 모두가 화합의 요정이 되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보성=김덕순기자



담양 한재초, 생존수영 및 물놀이 축제 성료

한재초등학교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동안 병설유치원 원아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및 한재TREE 물놀이 축제를 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설치된 이동식 수영시설에서 운영된 수영실기교육으로 학교는 비상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존수영'과 여름철 신나는 '물놀이 체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수영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학생 이동 간 안전문제 및 소요시간 최소화를 통해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상 안전 규칙 이해, 구명조끼 착용법, 수영 기초 훈련, 자유형 수영 익히기 등을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응력을 향상시켰다. 생존수영 교육과 함께 이루어

진 한재TREE 물놀이 축제는 코너별 체험활동(워터슬라이드, 비눗방울 체험, 물 율기기 게임, 물풍선 게임, 물총 서바이벌 등)으로 이루어져 원아 및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수영실기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도 좋았지만, 물놀이 축제를 통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오숙 교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한재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고, 교사·학생 배려와 동행 실천 '제11기 사제동행 지리산 종주'

2013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11번째 도전



진도고등학교는 지난 7일~8일 교사, 학생이 배려와 동행을 실천하는 '제11기 사제동행 지리산 종주'를 실시하였다. 교사 8명, 학생 35명

이 1박 2일간의 여정을 함께했다. 진도고등학교의 지리산 종주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11번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성삼재-임결령-연하천-벽소령-음정삼거리-음정마을의 코스로 총 23.5km 산행을 통해 끈끈한 결속력을 다졌다. 프로그램 관계자에 따르면 기상악화로 전원 중도 하산을 결정하여 초기 목표인 천왕봉 등반은 하지 못했으나,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배려와 인내, 감사를 실천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진도고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및 교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사진, 인터뷰를 토대로 산행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을 통해 지리산에서 흘린 뜨거운 땀방울과 열정을 확인하길 바란다.

진도=조상용기자

나주영재교육원, 2023 중등 인성 리더십 캠프

나주영재교육원 재학생 및 나주 관내 중학생, 총 62명 대상

나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지난 18일, 25일 2일에 걸쳐 나주영재교육원 재학생 및 나주 관내 중학생, 총 62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중등 인성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다.

인성리더십 교육에서는 5명의 강사진이 ▲미래에 답이 있다 ▲미래 사용 설명서 ▲창직발상 방법 ▲My 창작 콘테스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 ▲리더십 향상, 불변의 기술 ▲공정 심리학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